

AUTHOR 손봉호

TITLE 개혁주의와 전통문화

IN 월간고신

2호 (8, 1981): 60-65.

개혁주의와 전통문화

지난 5월 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거행되었던 「국풍 '81」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착잡한 반응을 일으켰다. 특히 「신사참배」문제 때문에 형성된 우리 교단으로서는 이번 행사를 아무 생각없이 지나쳐 버릴 수는 없었다. 이번 「국풍 '81」이 순수한 전통문화의 유산을 한 번 전시한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통적 종교의식을 재현한 것이나 하는 것은 그리 험사리 판자를 될 것 같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도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 번 기독교와 전통문화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기독교와 고유문화와의 관계는 비기독교적 문화배경을 가진 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대두되는 문제요,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막상 「지신밟기」 「푸닥거리」 등이 민족문화의 일부로 텔레비전 화면에 소개되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웬지 불안해지고 다소의 소외감을 느낀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런 것들을 거부해야 할 것이냐?' 라는 의문이 생긴다. 문화의 시작은 거의 대개 종교로부터였고, 특히 음악, 춤, 시 등의 예술의 형태들과, 설, 보름, 한가위 등의 명절들도 밀접하게 따져 보면 모두 전통적 종교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 뿐 아니라, 지금은 기독교적 전통의 일부가 되어버린 성탄절 12월 25일은 로마시대 태양신의 축제일이었고, 크리스마스 휴리나 부활절 달걀은 모두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 북방 게르만민족들 간에 유행했던 원시종교로부터 연유된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의 곡조도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서양의 민요, 유행가 등에서 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잘못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기독교는 문화적 공백상태 속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종교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문화 속에 전래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 자체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문화를 변형시키는 힘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의 작은 누룩이다. 그러나 그것은 온 반죽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누룩이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올바른 믿음이 작용하는 곳마다, 기존문화는 변화되고야 마는 것이다.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는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칼빈주의적 관점이라고 지적했는데 그것은 올바른 관찰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문화를 사랑하는 진정한 길은 그 문화에 의하여 영향받아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문화를 순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통문화를 변혁, 수용하는 데는 긴 세월과 매우 조심스런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문화의 요소들이 모두 전통적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수용하면 그 종교적 요소가 같이 들어오게 되며, 너무 늦게 수용하면 불필요하게 외래요소를 오래 유지해야 하여 신앙의 주체화를 지연시킨다.

많은 분야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 문화의 변혁 수용을 너무 지연시켜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찬송가다. 우리는 서양의 민요나 유행가 곡조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대신 한국적 가락은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 물론 이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우리의 귀에는 우리의 전통적 가락이 너무나 이교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전통적 가락을 창조적으로 찬송가에 수용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이제는 그 가락들의 배경이었던 전통 종교적 요소가 약화되었고 증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국풍 '81」에서 지신을 밟는 농악에 어느 정도 전통적 토속신앙의 요소가 남아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그런 요소가 남아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 박자에 맞춰 춤을 출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그런 요소가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이 이상 그것을 부정적으로 배격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기독교적으로 변형 수용할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전통문화와 관계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경계하고 반성해야 할 것은 「국풍 '81」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 와 있는 무속종교의 요소들이다. 과거 약 20여년간 한국교회의 신앙이 놀랄 정도로 무속화 되었음은 무속종교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내세소망의 약화, 부귀영화를 위한 기도와 연보, 교역자를 무당처럼 두려워하면서도 무시하는 일, 결혼과 하나님 중심사상이 결여된 신유 등 이는 「지신밟기」 「푸닥거리」 이상으로 한국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문화에서 이교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복음의 누룩으로 변형시켜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조의 제 일로 삼는 우리 교단이 앞장 서 해야 할 일이다.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문화를 사랑하는 길은 그 문화에 의하여 영향받고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문화를 순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다. 이 과업을 우리 교단이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빌리·그래함은 그의 메세지 형태부터 대중에게 관심을 둔 다양한 묘사를 사용한다.

잔디밭에 서 있었다. 나무들은 스페인 이끼에 덮혀 있었고 달빛에 그것은 마치 요정의 나라 같았다. 나는 풀밭에 앉아서 달과 별을 바라보며 남쪽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나의 가슴이 떨려왔다. '오, 하나님, 만약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주님의 사자(使者)가 되리라는 서원을 했을 때 내 뺨위로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 일이 있는 후로, 학교앞 잔디밭을 걸을 때마다 그래함은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거대한 군중들의 묘한 세계"에 사로잡힌 것을 회상한다. 그는 빌리·선데이와 무디가 증거한 큰 운동장이나 큰 집회에 그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상상했다.

빌리·그래함은 미국선교사상 4번째 "위대한 각성(great awakening)"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여러 차례의 역사적인 신앙부흥운동들은 그 운동기간 동안 영향력있는 설교자들을 배출시켰고 또한 그 신

학적 강조점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에서 일어난 제일 첫번째의 신앙부흥운동은 조나단·에드워드·조지·휘트필드 등등의 영향아래 1725년부터 1750년까지 확장되어 나갔다. 이 운동은 운명에정론에 입각한 칼빈주의적인 강조점을 수정하여 신앙에 있어서의 복음주의적인 운동을 강조했다.

두번째 운동은 1800년부터 1835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와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에 강조점을 두고, 첫번째 운동과 같은 경향으로 진행되어 나갔다. 찰스·피니, 디모테·드윅 등 야외 집회*(Camp meeting) 부흥사들이 이 변화를 이끌어 나갔는데 이것은 빌리·그래함 스타일 즉 자기신회, 미국적 개인주의에 대한 길을 준비한 것이었다.

세번째 일어난 운동은 1875년에서 1915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 중 한 줄기는 개인주의에서 탈피하여 실용주의, 진보주의, 이상주의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사회적 복음 운동으로 퍼져 나갔고 또 다른 한 줄기는 무디, 트레이, 빌리선데이 등이 이끄는 전통주의적인 신앙부흥운동 등이었다.

그리고 네번째의 신앙부흥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났는데 뉴딜·유포아적 이념에서부터 신경통주의로 변화한 게 특징이다. 이것은 생을 세속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보며, 신학적으로는 개인구원에 강조점을 두던 것이 초개인적 사회복음 쪽으로 관

심이 들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부흥운동들은 빌리·그래함에게 있어 신학적 배경을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복음전도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를 했다. 신앙부흥운동은 "일어나 활동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다."는 에드워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찰스·피니는 그의 신앙부흥운동 설교에서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즉 결심한 불신자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구도자적*을 사용하며, 경형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신앙부흥운동을 마을 번두리에서부터 옮겨 대도시의 공인된 기관이 되게끔 했으며 광고기술을 사용하여 극적인 설교 스타일을 채택하고 일상적인 주 4회의 회합을 연장시켰다. 19세기 말에 무디는 조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거기에 대해 윌리엄·맥도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디는 자신의 전도신앙운동내용을 사상 최초로 신문, 광고게시판, 포스터, 배라, 플래카드에 게재한 신앙부흥사였다. 그는 광고, 교회조직, 교사훈련, 성가대 카운셀러, 기도회 인도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진행준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사람이었다. 그는 한 도시에서 6주에서 6달에 걸쳐 계속되는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

는 신앙운동에 있어서 그 때에 드는 지출비용, 헌금, 기부금 등을 회계해서 공포한 첫번째 사람이었다."

그 뒤를 이어 빌리·선데이는 1935년에 그가 죽기까지, 전문적인 간사, 사전에 협의된 대표자를 위한 좌석설비, 거대한 성가대, 오락프로, 사회 정치적인 논평가들로 구성된 팀을 부가시켰다.

빌리·그래함 복음선교는 미국의 잘 발달된 신앙부흥운동의 전통이 그 배경이 되었다. 때때로,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당파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신앙부흥운동의 주요 흐름은 "일반적으로 종교의 선(善)을 위한 협동적인 기회"를 강조한다. 전문적인 복음주의자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죄와 악만을 공격한다. 그들은 교회와 비상업적인 영역으로부터 최대한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기독교 교리와 윤리에 대해 비종파적이며, 최소의 공동분모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들은 또한 애국심이 강한 미국인 정신과 온전한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정신을 동등시한다. 결국 전문적 신앙부흥론자들은 '미국인의 꿈의 기초가 되어온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이상과 그들 시대의 정신'을 거의 완전히 표현하고 있다. <계속>

* 기도, 설교 등을 며칠에 걸쳐 하는 집회

* 부흥회에서 '영적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교단 가까이 마련한 자리.